

# 광주·전남 제조업 생산 기지개... 소비는 위축

1월 생산 광주 12.3%·전남 1.0% 증가  
대형마트 등 소비는 두 자릿수 감소세  
취업자 광주 4천명 ↑ 전남 1만3천명 ↓

올해 1월 광주와 전남 지역의 실물경제가 제조업 생산과 수출에서는 회복세를 보였으나, 장바구니 소비는 여전히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광주는 자동차와 가전 등 주력 산업이 생산을

견인하며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 전남은 수출 부진과 더불어 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들며 대조적이였다.

1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 '최근 광주·전남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1월 중 광주지역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2.3%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전자부품(+47.7%)과 자동차·트레일러(+24.6%) 부문이 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수출 역시 전자전기(+42.1%)와 기계류(+25.2%)를 중심

으로 20.4% 늘어나는 등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전남지역 제조업 생산도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하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제1차 금속(+25%)과 코크스·석유정제(+0.3%) 등이 소폭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수출은 선박 등 기계류(-45.8%)와 화학공업제품(-6.9%) 부진으로 인해 전년 대비 11.1% 감소했다.

지역 생산 현장의 활기에도 불구하고 장바구니 경제는 팍팍 얼어붙었다. 1월 중 광주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는 백화점이 21% 소폭 증가했

으나 대형마트 판매가 20.0%나 급감하며 전체적으로 8.6% 줄었다.

전남은 상황이 더 심각해 대형소매점 판매가 전년 대비 24.4%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고용 시장은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광주는 임금근로자 증가에 힘입어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4천명 늘었으나, 전남은 임금과 비임금근로자가 모두 줄어들며 취업자 수가 1만 3천명 감소했다.

양 지역 모두 실업률은 상승 곡선을 그렸다. 광

주는 4.6%로 전년 동월 대비 0.6%p 올랐고, 전남은 6.3%로 1.2%p 상승했다. 이는 경기 불황에 따른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감소가 고용 지표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1월 중 광주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포함세를 유지한 가운데, 전남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2월 기준 광주 1.6%, 전남 1.9%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월보다 오름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임채만 기자

##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줄고 2금융권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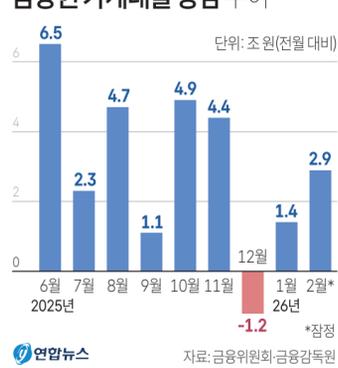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풍선효과' 등  
은행 3천억 ↓ 2금융권 3조3천억 ↑  
상호금융권 3조1천억 집단대출 증가

정부와 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속에 지난 2월 은행권 가계대출이 석 달 연속 줄었다. 하지만 '풍선효과' 등에 은행 외 2금융권 가계대출이 1월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한 달 전보다 3천억원 적은 1천172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월 증가 폭은 작년 6월 6조2천억원까지 커졌다가 6·27, 10·15 대책 등의 영향으로 9~11월 1조9천억~3조5천억원으로 줄었다.

여기에 은행들의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까지 더해져 결국 12월(-2조원) 11개월 만에 뒷걸음쳤고, 1월(-1조1천억원)과 지난달까지 감소세가 이어졌다. 은행 가계대출 3개월 연속 줄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 추이



든 것은 2023년 1~3월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934조9천억원)이 4천억원 늘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대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6조6천억원)은 7천억원 줄어 석 달째 감소세를 유지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 2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2

조9천억원 증가했다. 두 달 연속 늘었을 뿐 아니라 증가 폭도 전월(+1조4천억원)보다 커졌다.

은행권에서 3천억원 감소했지만, 2금융권에선 3조3천억원이나 늘었다. 2금융권 증가 규모도 1월(+2조5천억원)보다 확대됐고, 특히 상호금융권(+3조1천억원)이 집단대출 위주로 증가세를 주도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4조2천억원)이 전월(+3조원)보다 커졌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2천억원 줄었지만 전월(-1조6천억원)과 비교해 감소폭이 축소됐다.

은행의 2월 기업 대출(잔액 1천379조2천억원)은 9조6천억원 늘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 5조2천억원, 4조3천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에 포함된 개인사업자의 대출도 1조원 늘었다.

수신(예금)의 경우 은행에서 47조3천억원 급증했다. 특히 수시입출식예금이 기업 결제성 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 대기 자금 등의 유입으로 30조6천억원 늘었다. 가계 자금 소폭 유출에도 불구하고 정기예금 역시 10조7천억원 증가했다. /연합뉴스

## 광주일자리재단 '하남산단 환경캠페인'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11일 "하남혁신지원센터 및 하남산단 주변 일대에서 민주노동당광주본부 등 입주기관(사)와 함께 'ESG 경영 실천을 선도하는 하남산단 환경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업단지 환경개선과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재단 신원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민주노동당광주본부 등 입주기관(사)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여했다.

주요 행사 내용은 봄꽃 식재와 하남산단단지



주변 환경정화 활동으로, 산단 내 주요 보행 구간과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센터 및 산업단지를 방문하는 시민과 근로자들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재단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입주기관(사) 간 협력과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과 지역사회 환경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태호 기자



"망고 케이크 나왔어요" 11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 내 베이커리 매장에서 모델들이 오는 12일 신세계푸드가 출시하는 '망고에 무너진 케이크'와 '떠먹는 망고 케이크'를 소개하고 있다. <신세계푸드 제공>

## GICON, 계약직 직원 12명 공개 채용

20~26일 접수...이스포츠허 등 12개 분야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11일 "2026년 1차 계약직(프로젝트)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이며 지원서는 이메일 접수가 원칙이나 사전 문의 후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이번 채용은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음악사업 ▲이스포츠허 사업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광주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AI융합 지능형 농업생태계 구축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운영 ▲ICT 인노베이션스퀘어 확산 사업 운영 ▲광

주시 창업보육센터 운영 ▲아시아문화기술 실증센터 운영기반 구축 사업 운영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운영 ▲광주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운영 등 총 12개 분야에서 각 프로젝트 6급 1명씩, 총 12명을 선발한다.

자세한 채용 일정 및 지원 방법 등은 GICON 홈페이지(www.gic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기회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지역 콘텐츠·ICT 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채용하고자 한다"며 "이번 채용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광주에서 성장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바란다"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Advertisement for Gyeongju Daily newspaper. Includes headline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regions, and a QR code.